

한우

투쟁 종료 한우협, 한우인의 날 행사 준비 모드로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투쟁을 벌여왔던 한우협회가 이제 한우인들의 축제 준비체제에 돌입했다. 전국 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오는 9월 9일부터 3일간 울산광역시 태화강 둔치에서 제 12회 한우인의 날 및 한우협회 창립 14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추석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만큼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될 예정이다. 기념식은 첫째 날인 9월 9일에 열리며 행사장인 태화강 둔치에 직거래 장터를 열어 추석 선물세트 등 할인판매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울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지역 가요제를 비롯해 추석맞이 한우경매, 지역민 장기자랑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울산지회 김두경 지회장은 “울산은 소득 수준이 전국 최고로 한우고기 소비도 많이 되는 지역이다”라며 “더욱이 행사가 열리는 태화강 둔치는 평소에도 울산시민들이 많이 찾는 울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전국에서 모인 한우인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3. 08. 12

한돈

한돈캠핑과 한돈 소시지 1,000인분과 함께하는 이색 여름휴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야영장(서곡 오토캠핑장)에서 개최된 ‘2013 바비큐 팸 아웃도어 포레스티벌’의 메인 스폰서로 참가하고 한돈 캠핑, 한돈 소시지 1,000인분 시식회,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바비큐 팸 아웃도어 포레스티벌’은 바비큐와 아웃도어가 혼합된 문화행사로 국내 최초로 진행된 ‘한돈컵 프로바비큐 대회’를 비롯하여 바비큐 요리 체험교실, 바비큐 레스토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한돈자조금은 이색 여름휴가인 ‘한돈 캠핑’의 참가자를 8월 6일(화)부터 13일(화)까지 한돈닷컴 홈페이지, 한돈 공식 블로그, 한돈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시 모집했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명에게는 ‘바비큐 팸 아웃도어 포레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는 2박 3일 한돈 캠핑권 및 캠핑장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가족용 한돈 세트를 증정했다. 또한 8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에는 ‘한돈 무빙레스토랑’ 시식회를 통해서 고단백 저칼로리의 한돈 웰빙 부위로 만들어진 한돈 소시지 1,000인분을 제공했고, 이외에도 이벤트를 통한 다양한 경품을 증정했다.

양계

토종닭협회, 한닭 소비홍보를 위한 남산 걷기대회 개최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사)한국토종닭협회와 닭고기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제433회 거북이마라톤 한닭 소비홍보를 위한 남산 걷기대회'가 지난 8월 18일 오전8시 남산 국립극장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명예대회장인 사단법인한국토종닭협회의 김연수 회장과 토종닭 '한닭' 홍보대사인 방송인 고명환 등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는 2013 미스코리아들도 참가하여 시민들과 함께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걷기대회는 마라톤이 끝난 후 한닭(우리 토종닭의 새로운 이름) 홍보와 함께 이벤트 부스에서 미스코리아들이 직접 구워주는 닭고기 시식회도 진행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2013 미스코리아 진 유예빈, 선 김효희, 미 김민주, 한수민, 최혜린, 최송이는 "일요일 아침 공기 좋은 남산에서 시민들과 함께 마라톤도 하고 한닭 소비를 홍보하는 이벤트에도 참여하게 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뷰티한국 김수진 기자 2013. 08. 20

낙농 육우

닭고 싶은 낙농목장 모델 전국에 보급키로

국내 낙농목장 환경개선을 선도하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이 2013년도 우수목장 선정활동에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8월 12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차 우수목장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열띤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와 올 상반기에 공고한 우수목장 추천 접수현황을 보고받는 한편, 우수목장 선정기준의 확정과 현지심사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올해는 우수목장 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우수목장 선정에 있어 보다 객관적 평가와 효율적 활동 운영을 위해 선정위원 전원이 모든 현지심사일정에 참여키로 하였다. 올해 우수목장 추천조서 접수는 그 어느 때보다 전국 각지에서의 높은 관심으로 활발히 이뤄졌던 만큼, 매우 바쁜 심사일정이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전개키로 한 것이다. 낙농육우협회는 오는 10월 중 현지심사를 실시하고, 11월 제2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지심사결과에 따른 순위 확정과 시상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3년도 우수목

장 사례집을 제작하여 깨끗한목장가꾸기 운동에 대한 농가 동참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3. 08. 13

양봉

우리벌꿀, 해외시장 진출 '청신호' 양봉협, 日 수출 합의... 내달 초도물량 70드럼

우리벌꿀의 해외시장 진출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국양봉협회(회장 조균환)는 그간 국내산 벌꿀의 해외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올해 일본의 바이어를 통해 국내산 벌꿀 수출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빠르면 오는 9월 우리벌꿀이 처음으로 일본으로 수출키로 합의를 마쳤다. 초도 수출물량은 아카시아 벌꿀 70드럼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정이 매우 까다로워 양봉협회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한 연구시설 보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도 일본 측 관계자,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산 벌꿀을 수입하려는 업체는 현재 일본 내에서 연간 1만톤 정도의 벌꿀을 소비유통시키는 대규모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혁 한국양봉협회 사무총장은 “국내산 벌꿀에 대한 일본 관계자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향후 꾸준히 수출물량을 증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첫 수출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산 벌꿀의 재고문제가 심각한 만큼 벌꿀 수출이 국내양봉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3. 08. 21